

Retail Weekly

김명주 myoungjoo.kim@miraeasset.com

경민정 minjeong_kyeong@miraeasset.com

유통 코멘트

미국 의류 리커머스 기업 Thred UP 나스닥 상장 <https://cnb.cx/3dbxCGM>

- Thred UP, 금요일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
- Thred Up은 의류/잡화 중심의 온라인 리셀러 플랫폼
- 종가 공모가 대비 43% 상승. 20년 매출 기준 PSR 약 9배 수준
- 리커머스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높음 (명품 리커머스 리얼리얼 22년F PSR 3.6X)
- Thred Up의 성공적 상장으로 향후 리커머스/리셀러 시장에 대한 관심 커질 것
- 글로벌 리셀러 시장 19~24년 CAGR 39% 예상. 특히 리커머스 성장 압도적
(<https://www.thredup.com/resale/#resale-growth>)
- 1) 압도적 시장 성장 및 2) ESG에 부합하는 리커머스 시장 주목 필요
- 관련 기업은 전일 상장한 Thred Up과 명품 리커머스 리얼리얼이 대표적

‘리얼리얼 레포트’ 관련레포트: <https://bit.ly/3ctWYkf>

전주 주요 뉴스

- 마켓컬리, 미국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선정
<https://bit.ly/3syse70>

① 이마트 (전주주가 +0.9%)

- SSG닷컴. 4/20 부터 오픈마켓 시범 운영 시작하고 상반기 중에 정식 론칭 계획. 판매자 센터 ‘쓱 파트너스’ 오픈 <https://bit.ly/3syiedZ>

② 롯데쇼핑 (전주주가 -0.4%)

- 롯데쇼핑, 유진-코리아오메가가 인수하는 중고나라 지분에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서 300억원 투자 <https://bit.ly/3u4PwIA>

③ 쿠팡 (전주주가 -3.0%)

- 쿠팡이츠, 3월까지 호남 지역에서 신규서비스 확대하고 4월까지 강원도/제주로 확대해 전국 단건 배달 서비스망 확충 예정 <https://bit.ly/3rx6FIW>

향후 주요 이벤트

쿠팡, 전북 완주에 물류센터 구축 예정 <https://bit.ly/3fISV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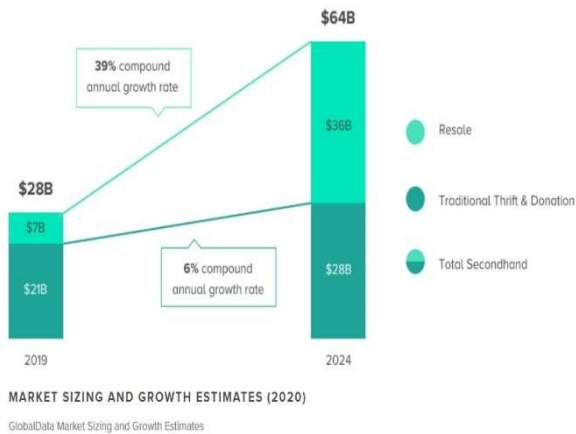
- 쿠팡, 완주군과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3만평 규모로 총 투자비용은 1,000억원으로 알려짐
- 쿠팡은 상장 자금을 통해 향후 2~3년간 6~8개의 물류센터 건립 예정
- 21년 한국 온라인 침투율 37% (자동차 제외 41%)
- 온라인을 넘어서 소매시장 내 점유율 확보 시 오프라인 인프라가 필요
-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기업의 오프라인 인프라 확보 니즈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
- 신세계그룹/롯데쇼핑 등 오프라인 인프라 활용도 향상 시 차별화 경쟁력 확보 가능
-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의 전략적 협업 방안 중 약 6,000개의 오프라인 매장 활용도 향상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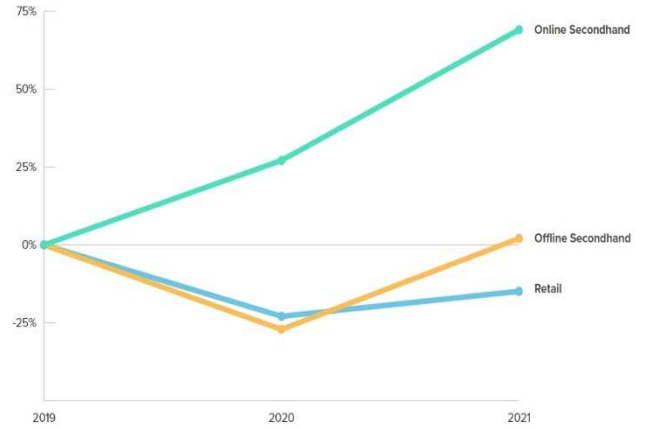
Key Chart

그림 1. 글로벌 중고시장(Secondhand market)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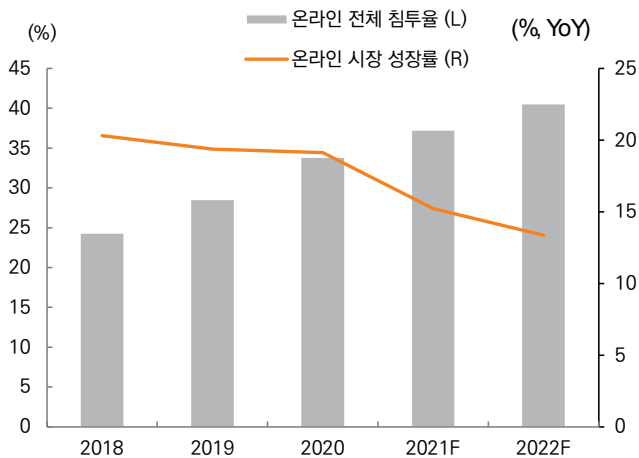
주: GlobalData Market Sizing and Growth Estimates
자료: Thred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온라인 중고시장 성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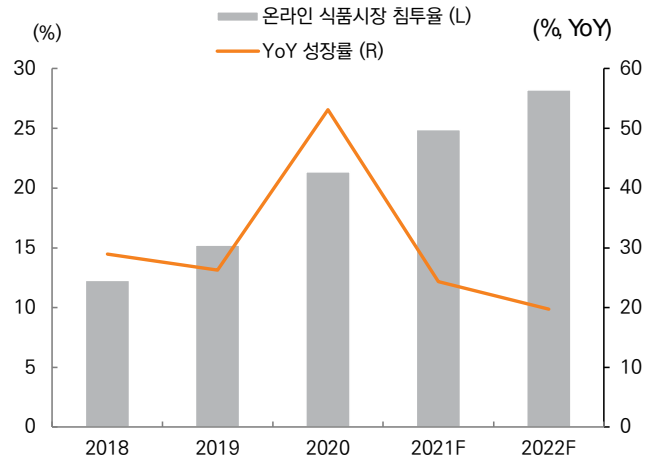
주: GlobalData Market Sizing and Growth Estimates
자료: Thred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한국 온라인 시장 추정



자료: 국가통계포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한국 온라인 식품 시장 추정



자료: 국가통계포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

이름	티커	시가총액		수익률					P/E(X)		P/B(X)		ROE(%)	
		Local	USDmn	1W	1M	3M	YTD	1Y	21F	22F	21F	22F	21F	22F
롯데쇼핑	023530 KS	3,593	3,180	-0.4	2.0	30.7	-3.5	82.8	22.4	13.1	0.4	0.4	1.7	2.8
이마트	139480 KS	4,892	4,331	0.9	-0.8	17.8	39.5	70.2	14.5	12.0	0.5	0.5	3.5	4.2
호텔신라	008770 KS	3,422	3,030	-0.3	2.8	8.1	-3.7	23.1	64.1	20.8	4.8	4.0	6.5	20.6
신세계	004170 KS	2,771	2,453	1.4	2.7	20.1	-2.0	21.9	14.4	10.5	0.7	0.7	5.3	7.0
롯데하이마트	071840 KS	977	865	11.4	12.7	36.6	39.3	192.7	8.5	7.9	0.5	0.5	5.8	6.0
현대백화점	069960 KS	2,083	1,844	2.5	6.8	28.1	8.6	54.6	10.8	8.6	0.5	0.4	4.4	5.3
GS리테일	007070 KS	2,976	2,634	-0.4	7.7	15.2	1.1	36.1	14.7	12.0	1.2	1.1	8.7	10.0
BGF리테일	282330 KS	2,826	2,501	-3.3	-1.8	20.1	-1.8	37.5	17.5	15.3	3.5	3.0	21.5	21.4
지누스	013890 KS	1,289	1,141	-4.2	-7.7	-10.4	-2.5	45.7	11.4	8.9	2.4	2.0	23.0	24.1
Walmart	WMT US	430,044	380,671	2.6	0.2	-5.4	16.1	25.1	24.6	22.8	4.5	4.3	17.8	19.0
Kroger	KR US	32,021	28,345	5.2	12.7	18.7	31.9	31.1	13.2	12.9	2.6	2.4	21.2	19.8
Costco	COST US	175,985	155,781	7.0	2.9	-3.3	24.2	24.6	35.0	32.2	8.8	7.4	24.7	24.3
Target	TGT US	113,192	100,197	7.1	7.8	15.1	60.5	112.9	22.7	20.9	6.5	6.1	29.0	30.0
Macy's	M US	5,759	5,098	-12.2	3.4	52.7	0.6	176.4	22.6	16.2	1.9	1.7	6.7	8.1
Bestbuy	BBY US	33,688	29,820	0.9	3.9	17.0	40.4	94.2	16.2	14.8	8.3	7.9	45.2	58.8
Nordstrom	JWN US	6,901	6,109	-8.9	3.1	27.6	-4.2	116.0	30.4	17.6	15.2	13.0	48.6	70.0
Tempur Sealy	TPX US	8,655	7,661	-3.8	12.6	35.6	74.8	216.5	15.6	14.0	14.3	11.5	89.0	86.1
Sleep Number	SNBR US	4,037	3,573	-2.1	10.0	65.9	186.0	462.2	23.1	21.1	-	-	-76.4	-141.1
Ocado	OCDO LN	24,210	21,430	4.1	-9.9	-6.4	64.6	69.2	-	-	11.0	12.1	-10.9	-10.1
Isetan	3099 JP	3,303	2,924	-5.6	10.5	35.1	-16.6	24.9	102.8	42.4	0.6	0.6	-0.7	1.3
Mitsukoshi	8233 JP	2,235	1,979	-2.4	17.3	46.3	3.2	28.2	33.6	23.1	0.5	0.5	0.9	2.1
Seven & I holdings	3382 JP	41,366	36,617	0.7	9.1	27.7	17.7	30.0	14.4	15.8	1.4	1.3	10.1	8.5
Familymart	8028 JP	-	-	-	-	-	-12.1	21.6	-	-	-	-	8.8	9.0
Lawson	2651 JP	5,774	5,111	3.1	10.1	18.2	-5.9	0.1	27.3	25.5	2.1	2.0	7.5	8.4

주: Local은 십억원, 십억엔, 백만달러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